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간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mong income levels:
Focusing on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 선 강**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mong the middle-aged at various income levels. Analyses of data on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 2nd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conducte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931 middle-aged individuals who had at least one living parent and one child. The data analysis methods were χ^2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individual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frequency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igh-income households than in middle- and low- income households. A comparison of high-, middle- and low-income households shows that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in middle-income households than in low- or high-income households. The level of life

* 본 논문은 201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고선강(skoh@sungshin.ac.kr)

satisfaction was dependent upon to whom middle-aged individuals gave financial resources. In the middle-income group, the middle-aged who gave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ing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or childre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in any income-level group.

Key -Words : 경제자원 이전(financial resource transfers),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 노후준비 (preparation for later life),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중년기 (middle-aged)

I. 서론

우리 사회의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노년 인구 증가의 초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하는 것에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가 65세를 넘게 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 각 영역에 노년층이 중심세력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노년층의 증가는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전반의 침체에 대한 불안과 늘어나는 노년층을 위한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결국 국가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년층을 부양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게 되어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는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년층은 여전히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의 노년층은 성인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부모부양 방식을 기대하고 노인이 된 세대이다. 통계청의 201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 생활비를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이 50.7%였고,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57.4%, 50대는 74.4%, 60대 이상은 79.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2). 2013년 사회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생활비 마련방법을 질문하였는데, 70대 노인들의 37.5%, 80세 이상 노인들의 57.9%가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하였다(통계청, 2013).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년층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2008년과 2012년의 사회조사(통계청, 2012)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족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조사에서 가족이 부모의 노후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3.2%로 나타났는데, 2008년에 40.7%와 비교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년층은 자신의 부모는 부양하고 있으나 자녀로부터는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가 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중년층의 자녀에 대한 지원 부담은 적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사회연구원(2012)에 실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김승권 외, 2012a)에 의하면 6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49.6%)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혼인할 때까지(20.4%), 취업할 때까지(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책임을 갖는다는 답은 8.9%로 나타나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로서 양육책임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 중노년 부모들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양육책임을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대학생의 약 68%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자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다(통계청, 2012). 신혼부부가 신혼집 마련 등의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는 남성이 38%, 여성이 41%였고, 대다수 부모의 도움을 받아 결혼비용을 마련하고 있었다(김승권 외, 2012b).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5년 이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자녀의 결혼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끝이 아닌 것이다(고선강, 2012).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이 될 때,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수의 노년인구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가지고 온 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복지제도로는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인구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년층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많은 자원을 누리

며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한 세대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가 이전 세대보다 높지만 스스로 충분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B경영연구소가 비은퇴자 3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노후준비보다 재무영역의 노후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재무적 준비의 취약성이 컸고, 50대의 경우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로 자녀교육비와 자녀의 결혼자금을 꼽았다. 40-50대의 약 38%가 향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과도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노현곤·김희규, 2012).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중년층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세대 간, 가계 간 경제자원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경제자원은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전되는 성격보다는 경제생활의 단위인 가정 또는 가계 간에 이전되는 특징이 있고, 가계 간 이전소득 또는 이전지출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이전소득은 소득의 원천(누구로부터 이전받는가)이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의 사적인 관계인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라 하고, 정부의 공공부조 등 공적인 원천으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라 한다. 부모-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은 사적 이전소득 또는 이전지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을 포함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계소득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낮아진다(강성진·전형준, 2009).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가계소득에서 가족 간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낮아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상위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사적

이전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하락이 컸으며, 노인가구의 경우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홍경준, 2013). 이처럼 친족관계 안에서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대다수 경제자원 이전의 영향 요인을 찾거나 이전 행동의 동기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다(고선강, 2005; 고선강, 2008; 고선강, 2011; 고선강, 2012a; 고선강, 2013; 김순미·박미려, 2008; 김영순·고선강, 2014; 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경·송현주, 2008; 문숙재·김지연, 2006; 배희선, 1998; 이운정·고선강, 2011; 황남희·정주연, 2009; 하석철, 2010). 대다수 선행 연구들은 경제자원 제공자의 관점에서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고, 노부모 부양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중년층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고선강, 2012b; 김영순·고선강, 2014; 김지경·송현주, 2008)과 3 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고선강, 201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종합하면 세대 간 자원 이전 연구에서 경제자원 이전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경제자원 이전이 자원이전 주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가족자원 경영학에서 세대 간 자원이전의 효과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준비, 생활만족,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김순미·고선강, 2012; 김영순, 2013; 홍성희·곽인숙, 2014). 이들 연구는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이 중노년층 삶의 중요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층의 부모 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 생활만족과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이 가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소득계층에 따라 중년층의 삶에 나타난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적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부모 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이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소득계층별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년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이 노후준비와 생활만족에 어떻게 다른 의미를 주는가를 밝히고자 하며, 연구 결과는 중년층의 노후준비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중년층의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중년기는 신체적인 노화를 경험하고 사회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로 본다. 중년기의 연령범위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대~60대 사이를 중년기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확장된 연령 범위의 중년기를 사용하기도 한다(Lachman, 2001). 현재 고령자 통계의 기준으로 65세가 사용되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65세 미만을 중년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조경진·김순미, 2012).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 Erikson(1963)은 생성감의 성취를 제시하였다. “생성감은 다음 세대를 낳고 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정의된다(조윤주, 2008에서

재인용). 중년층은 자녀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지원자(supporter)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생성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중년기의 과업 성취는 다양한 경로의 배품과 지원으로 확장될 수 있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노부모에 대한 배품과 지원도 중년기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중년층의 생성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조운주, 2008), 생활의 만족(Aubin & McAdams, 1995; 이은희 외, 2004)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중년기 성인의 생성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관해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자신의 생활전반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을 중년층의 생성감 형성 과업의 하나로 본다면,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이 중년층의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은 생존해 있는 부모와 자녀 간에 경제자원을 주거나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친족관계 안에서 경제자원을 제공하거나 수혜하는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 소득 또는 지출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중년층은 윗세대와의 이전(노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고, 노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고)과 아랫세대와의 이전(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고,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이 모두 가능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연구는 3세대 간의 이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선강, 2013).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후준비의 수준은 높지 않다고 한다(강유진, 2005; 김운정·최윤희, 2004; 조경진·김순미, 2012; 노현곤·김희규, 2012). 특히 중년층의 노후생활비 준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현곤·김희규, 2012). 정운영·이희숙(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 연

령이 50대 이상인 가계의 약 80%가 노후준비에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고, 조경진·김순미(201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가계의 약 50%가 노후생활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 중년층의 불충분한 노후생활비 준비와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많지 않으나 최근 학문적 관심이 늘어나는 주제이다. 강유진(2005)은 중년층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과 부모역할 수행이 중년층의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은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영역에서 부모에게 도움 제공 여부로 측정하였고, 부모역할 수행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는가’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중년층의 부모역할수행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중년층이 스스로 부모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다. 김순미·고선강(2012)은 50~60대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노후생활준비는 1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5점이 매우 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지 않은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지 않은 경우 중년기 성인은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 정도가 높았다. 가계의 자산수준에 따라서 경제자원 이전이 노후생활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가계의 자산수준이 중간에 속하는 사람들 보다 자산수준이 낮거나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경제자원 이전이 노후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특히 경제자원을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순(2013)의 연구는 기혼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원, 도구적 자원, 정서적 자원의 이전행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한 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의 액수에 따라 부모의 노후준비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의 액수가 클수록 부모는 노후준비의 충분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험은 노후준비의 충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이선형·최은희(2010)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중년층이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할 확률이 높았다. 조경진·김순미(2012)는 중년기 가계의 노후생활비 준비에 대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는데, 중년기 가계에 공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가계소득, 저축액, 부채 등을 통제한 후에도 공교육비의 지출이 있는 가계의 노후생활비 준비 확률이 높았다. 연구자들은 가계의 경제자원 수준이 유사한 경우 공교육비 지출이 있다는 것이 가계의 미래 경제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여 노후생활비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생활 만족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대상과 경제자원 이전에 대한 측정 방법은 다르지만 경제자원 수혜 또는 제공과 생활만족의 정적인 관계를 지지한다. 신화용·조병은(2001)은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이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은 '정신적, 경제적,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남편의 생활만족도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형실(2003)은 농촌노인의 세대 간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60대의 경우 경제자원 제공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남성 노인의 경우 경제자원 제공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자원 수혜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민아·한경혜(2004)는 경제자원 이전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하였다. 경제자원 이전을 쌍방향(부모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음), 자녀지원형(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제공함), 자녀수혜형(부모에게 제공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음), 무교환형(부모에게 제공하지 않고, 받지도 않음)으로 구분하고 이전 형태에 따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쌍방향의 성인자녀가 자녀수혜형 및 무교환형의 성인자녀보다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지원형의 성인자녀가 무교환형의 성인자녀보다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성인자녀가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김영순(2013)은 결혼한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자원이전이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혼한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험은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경로 분석 결과,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험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의 액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의 액

수는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노후준비정도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의 액수가 클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았고, 노후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경제자원 제공 액수는 노후준비를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곽인숙(2014)은 40세~65세 사이의 중년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교환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지원교환의 유형을 중년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자녀가 중년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중년부모와 자녀가 상호 경제자원을 교류한 경우, 마지막으로 중년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제적 자원의 교류가 없는 경우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자녀가 중년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와 비교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지원한 경우, 교류가 없는 경우에 부모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노후생활비 준비 정도는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준비를 잘하는가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홍성희·곽인숙(2006)과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10)은 중년층의 근로자와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고 남성이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을 여성보다 더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박창제(2008)와 이선형·최은희(2010)도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상반된 연구결과로 김양이·이채우(2008)는 40세부터 60세 사이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년층의 연령도 노후생활 준비와 관련이 있다. 강유진(2005), 홍성희·곽인숙(2006)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10)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였고, 김순미·고선강(2012)과 김영순(2013)도 조사대상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중년층의 생활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은아(2007)는 중년기 직장남성의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고, 김영순(2013)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노후준비를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임소진·어성연(2011)은 중년기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박지수·박경란(2009)의 연구도 중년 성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수준과 노후생활비 준비는 정적인 관계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이선형·최은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의 사람들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고,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10)의 연구도 전문대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잘한다고 하였다.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도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인 경우,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성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김정석·김익기, 2000; 박지수·박경란, 2009; 임소진·어성연, 2011; 김영순, 2013)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도 정적인 경향을 보여 중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가 노후생활 준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김영순(2013)의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성을 낮게 인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미령(2012)은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연구하였는데 조사대상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아(2007)는 직종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다르며,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일반사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김양이·이채우, 2008), 소득계층에 따라 노후생활비 준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중간소득층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이선형·최은희, 2010). 가계의 자산 수준도 노후생활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박창제, 2008),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홍성희·곽인숙, 2006).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생활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화용·조병은(2001)의 연구에서는 은퇴한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가계소득, 소득의 감소 정도, 소득의 적합성 등 가계의 경제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가계소득의 적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이 넉넉하다고 인지할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은아(2007)는 중년기 남성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

는데,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인 집단과 비교하여 400만원 초과하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박미석·김미영, 2012; 박지수·박경란, 2009; 김영순, 2013; 홍성희·곽인숙, 2014)에서도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세대 간 경제자원이전의 노후생활비 준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를 선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선정하였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포함시켰다. 추가로 가족 관련 변인으로 배우자 유무와 자녀수를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이 중년층의 노후생활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소득계층별 차이는 어떠한가?
- 2)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이 중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소득계층별 차이는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 준비,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2007년도)를 활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은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로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심과 시설단위의 조사구를 제외한 24,995개 일반조사구(1,420,999가구)에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가구가 조사대상가구로 추출되었고, 만 50세 이상 가구원과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국민연금연구원, 2011).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는 조사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원 이전을 세대 단위로 측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은 이전소득과 이전지출에 포함되어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이전소득과 이전지출을 개인 단위로 측정할 것인가, 세대 단위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분석의 초점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개인이 특정 개인과 경제자원을 주고받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조사대상자의 세대가 그들의 부모세대 또는 자녀세대와 자원을 주고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원 이전을 세대 단위로 측정할 자료인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표본은 조사대상 5110가구의 가구원으로 연령이 40-64세의 중년기 성인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세대 간 자원이전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추출된 경우는 한 사람만 표본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자원이전 행동을 비교분석하는 것이어서 가계소득에 대해 답하지 않은 사람(무응답)은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최종 연구표본의 크기는 931개 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와 노후생활비준비다.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매우 불만족(5점), 불만족(4점), 보통(3점), 만족(2점), 매우 만족(1점)’의 순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는 연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노후생활비준비는 조사대상자가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인 노후 생활비 충당 방법이나 노후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충분하다(1점)’ 또는 ‘충분하지 못하다(0점)’로 답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들은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이다.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작년 한 해 동안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가족,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종교단체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받은 적(또는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었다’ 또는 ‘없었다’에 답을 하였다. ‘있었다’로 답을 한 조사대상자에게 ‘누구로부터(또는 누구에게) 지원을 받았는지(또는 했는지)’를 질문하였고, 답할 수 있는 범주들 중 ‘부모’와 ‘자녀’에 답을 한 경우들을 조합하여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의 4개의 변수를 만들었다. 자원의 제공 또는 수혜가 ‘있었다’는 1점으로 ‘없었다’는 0점으로 코딩되었다.

상속과 증여 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상속증여 제공은 조사대상자가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조사 이후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적이 있습니까?’에 ‘있다(1점)’ 또는 ‘없다(0점)’로 답한 것으로 하였다. 상속증여 수

해는 조사대상자가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토지나 주택 등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1점)’ 또는 ‘없다(0점)’로 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두 변수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수, 가계소득, 가계자산이 사용되었다. 성은 여성에 0의 값을 부여하고, 남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하여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으로 명명하였다. 다변량 분석모형에는 준거집단을 ‘중학교 이하’로 설정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조사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되었다. 취업여부는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질문에 취업자로 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자녀수는 조사대상자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슬하에(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생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남 몇 녀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가계소득은 1년간의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장급여,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 준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은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 투입되는 동시에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이다. 소득계층 구분을 위해 가계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서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먼저 가계소득 하위 25%, 50%, 75%를 기준으로 4분위로 나누어서 1분위의 하위 25%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계소득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계소득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4분위를 가계소득 상위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2분위와 3분위를 가계소득 중위 집단으로 하였다. 가계소득 상, 중, 하의 집단 구분은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준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소득계층 간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는 가계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가계자산은 주택 자산가치, 사업체 자산가치, 기타 부동산 자산가치,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적립펀드 납부금, 주식투자자금,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아직 타지 않은 깃돈, 기타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2)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표 1>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연구표본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9점이고 표준편차는 0.69점이었다. 5점을 기준으로 3점이 보통 정도의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표본의 경우 생활만족의 정도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비준비는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이 26.4%, 불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이 73.6%를 차지하여, 거의 3/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노후생활비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원 이전에 대한 것은 지난 1년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29.9%였고,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비율은 57.6%였다. 연구표본의 중년층은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1%로 매우 낮았고,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2.8%였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6.4%였고, 상속이나 증여를

〈표 1〉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N=931)

구분	변수	변수 값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종속 변수	생활만족도		3.29	.69
	노후생활비준비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다	727 246	73.6 26.4
독립 변수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없었다	653	70.1
		있었다	278	29.9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	없었다	395	42.4
		있었다	536	57.6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없었다	902	96.9
		있었다	29	3.1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없었다	439	47.2
		있었다	492	52.8
상속증여 제공	없었다	685	73.6	
	있었다	246	26.4	
상속증여 수혜	없었다	641	68.9	
	있었다	290	31.1	
통제 변수	성	여성	480	51.6
		남성	451	48.4
	연령	40대	65	7
		50대	613	65.8
		60대(60-64세)	253	2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6	30.7
		고등학교	528	56.7
		대학교 이상	117	12.6
	취업여부	취업자 아님	312	33.5
		취업자	619	66.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21	13.0
		배우자 있음	810	87.0
	자녀수		(2.53)	(1.01)
	가계소득		(40331.96)	(43286.97)
25%(1사분위수)		18270		
중위수(2사분위수)		30990		
75%(3사분위수)	49900			
가계자산		(238921.52)	(383612.53)	
	25%(1사분위수)	31500		
	중위수(2사분위수)	97150		
75%(3사분위수)	223250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1.3%였다.

연구표본의 51.6%는 여성이고, 48.4%는 남성이다. 평균 연령은 56.2세이며, 40대가 7%, 50대가 65.8%, 60대가 27.2%를 차지한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30.7%,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56.7%,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12.6%였다. 전체의 66.5%가 취업자였고, 87.0%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수는 평균 2.53명이었다. 가계소득은 평균 40,331천원이고, 중위소득은 30,990천원이었다. 가계자산은 평균 238,921천원이었고, 중위자산은 97,150천원이었다.

4. 분석 방법

변수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사분위수를 구하였다. 소득계층별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소득계층별 노후생활비 준비, 경제자원 이전 실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노후생활비 준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고,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IBM SPSS 20.0이다.

IV. 결과 및 해석

1. 소득계층별 노후생활비 준비정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자원 이전

<표 2>는 노후생활비준비와 생활만족도를 소

득계층별로 비교한 것이다. 가계소득 하위 집단의 9.1%만이 노후생활비 준비에 대해 충분하다고 답했고, 가계소득 중위 집단의 18.2%, 상위 집단의 42.1%가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준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서 소득계층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선행연구들(이선형·최은희, 2010; 김순미·고선강, 201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생활만족도의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계소득 하위 집단의 생활만족도는 3점으로 5점 척도에서 중앙에 오는 보통을 나타낸다. 가계소득 중위 집단의 생활만족도는 3.27, 하위 집단의 생활만족도는 3.63으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박미석·김미영, 2012; 박지수·박경란, 2009; 김영순, 2013)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소득계층별 경제자원 이전의 실태를 비교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자원 이전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 비율이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가계소득 하위 집단에서 14.7%, 중위 집단에서 30.5%, 상위 집단에서 43.8%였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가계소득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은 가계소득 하위 집단 비율의 2배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차이의 폭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비율의 차이보다는 낮았다. 가계소득 하위 집단은 49.1%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지원한 반면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은 각각 60.3%,

〈표 2〉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가계소득				χ^2
			하 (n=232)	중 (n=466)	상 (n=233)	전체 (n=931)	
노후생활비준비	충분하지 못하다	빈도	211	381	135	727	81.38***
		백분율	90.9	81.8	57.9	78.1	
	충분하다	빈도	21	85	98	204	
		백분율	9.1	18.2	42.1	21.9	
			가계소득				F
			하 (n=232)	중 (n=466)	상 (n=232)	전체 (n=930)	
생활만족도	평균		3.00	3.27	3.63	3.29	56.49***
			a	b	c		Scheffé

***p < .01

60.5%의 사람들이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의 비율을 보면 먼저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지원 받은 경험은 소득계층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표본의 3.1%인 29명만이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었고, 가계소득 상·중·하 집단 각각 3.0~3.4% 정도의 비율로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비율은 가계소득 하위 집단이 59.1%, 중위 집단이 43.0%, 상위 집단이 46.4%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년층이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계층이 하·중·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높아졌으나,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중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서는 중간 소득계층도 상위 소득계층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득계층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의 차이는 50대~6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 연구는 가계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서 각 분위별 경제자원 이전의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다고 하였다.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는 경험은 소득계층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는 비율은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수혜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비율은 소득계층별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비율은 가계소득 1분위가 가장 높고, 3분위, 2분위, 4분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계소득 상위, 가계소득 하위 집단의 차이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표 3〉 중년층의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경제적 자원이전			가계소득				χ^2
			하 (n=232)	중 (n=466)	상 (n=233)	전체 (n=931)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없었다	n	198	324	131	653	47.24***
		%	85.3	69.5	56.2	70.1	
	있었다	n	34	142	102	278	
		%	14.7	30.5	43.8	29.9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	없었다	n	118	185	92	395	9.01***
		%	50.9	39.7	39.5	42.4	
	있었다	n	114	281	141	536	
		%	49.1	60.3	60.5	57.6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없었다	n	225	452	225	902	.11
		%	97.0	97.0	96.6	96.9	
	있었다	n	7	14	8	29	
		%	3.0	3.0	3.4	3.1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없었다	n	95	219	125	439	7.53***
		%	40.9	47.0	53.6	47.2	
	있었다	n	137	247	108	492	
		%	59.1	53.0	46.4	52.8	

p< .05, *p< .01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계층별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경제자원 수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거나 차이의 폭이 낮아지는 이유는 경제자원 이전은 제공자의 경제적 여력(소득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의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중년층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여력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제공되고 있거나, 경제적 여력 이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준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소득계층별 비교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준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후생활비준비와 생활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노후생활비준비, 생활만족도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인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준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공차와 VIF값(1.032~1.762)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는 노후생활비준비와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된 각각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표 4) 노후생활비준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통제·독립 변수 (준거집단)		노후생활비준비 (n=890)			생활만족도 (n=889)		
		B	S.E.	Exp(B)	B	S.E.	β
통제 변수	성(여성)	-.669 ***	.232	.512	.086 *	.051	.063
	연령	.084 ***	.026	1.088	-.001	.006	-.007
	교육-고등학교(중학교 이하)	.423 *	.248	1.526	.082	.052	.060
	교육-대학 이상(중학교 이하)	1.347 ***	.335	3.844	.293 ***	.082	.143
	취업(비취업)	.062	.216	1.064	.002	.049	.002
	배우자 유무(배우자 없음)	-.316	.328	.729	.018	.069	.009
	자녀수	-.113	.113	.893	.038	.024	.056
	가계소득 하(가계소득 중)	-.611 **	.284	.543	-.180 ***	.054	-.115
	가계소득 상(가계소득 중)	.858 ***	.206	2.359	.233 ***	.053	.150
	가계자산 하(가계자산 중)	-.333	.323	.717	-.126 **	.059	-.080
가계자산 상(가계자산 중)	.806 ***	.245	2.239	.191 ***	.053	.141	
독립 변수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367 *	.195	1.443	.029	.047	.019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	.357 *	.194	1.428	.082 *	.043	.059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1.045	.689	.352	-.340 ***	.117	-.089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205	.205	.814	.009	.047	.007
	상속증여 제공	.171	.213	1.187	.156 ***	.050	.102
	상속증여 수혜	.100	.193	1.105	-.010	.046	-.007
상수	-6.473	1.553	.002	2.965	.337		
χ^2 / F		165.761***			13.481***		
Nagelkerke R ² / R ²		.259			.208		

*p< .1, **p< .05, ***p< .01

의하였으며, 노후생활비준비는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들에 의해 약 26%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의 약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후생활비준비 모형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계자산이었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인 경우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 경향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할 경향이 더 높았다. 가계소득 하위집단인 경우 중위집단과 비교하여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상위집단인 경우는 충분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가계자산은 중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위 집단이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경향이 높다.

독립변수들인 경제자원 이전의 영향력은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과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모두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

생활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 다른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은 노후생활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성이 높다는 것과 김영순(2013)의 연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의 액수가 클수록 부모는 노후준비의 충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인 경우,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가계소득 중위 집단과 비교하여 가계소득 상위 집단이, 가계자산 중위 집단과 비교하여 가계자산 상위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지 않는 경우와 상속이나 증여를 제공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형실, 2003; 한민아·한경혜, 2004; 김영순, 2013)에서 중년층이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종합해보면 경제자원 이전은 자원이전 주체의 경제적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자원 이전이 노후생활비준비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와 <표 6>은 경제자원 이전이 노후생활비준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표 5>를 보면 가계소득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각각에 노후생활비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각 소득집단 안에서도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의 극단값에 의한 편포를 교정하기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

하였다. 3개의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 중 가계소득 하위 집단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모형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계소득 중위 집단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상위 집단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모형의 설명력은 33.3%였다.

가계소득 중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들은 연령, 가계소득, 가계자산,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이었다. 가계소득 중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자산의 크기가 클수록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자원 영향력과 상속 및 증여의 노후생활비준비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계소득 상위 집단의 모형에서는 성, 연령, 자녀수, 가계자산이 노후생활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가 없었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가계소득 집단은 경제자원 이전 행동보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 노후생활비준비의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비준비에 대한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자원 이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년층의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준비의 관련성은 중간 소득계층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경제자원 이전은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는 것보다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노후생활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5) 소득계층별 노후생활비준비의 영향요인 분석

통제·독립 변수 (준거집단)		노후생활비준비								
		가계소득 하 (n=232)			가계소득 중 (n=442)			가계소득 상 (n=228)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통제 변수	성(여성)	.663	.654	1.940	-.461	.348	.631	-1.555 ***	.443	.211
	연령	-.085	.074	.918	.092 **	.040	1.097	.180 ***	.053	1.197
	교육2-고등학교 (중학교이하)	-.500	.680	.606	.549	.351	1.731	.044	.532	1.045
	교육3-대학이상 (중학교이하)	2.071	1.052	7.935	.595	.548	1.813	.908	.626	2.479
	취업(비취업)	.023	.609	1.023	-.239	.321	.787	.541	.418	1.718
	배우자	-.897	.586	.408	-.569	.533	.566	1.231	.951	3.426
	자녀수	.255	.227	1.290	-.230	.185	.795	-.562 **	.261	.570
	가계소득(로그)	.166	.472	1.181	.907 *	.474	2.477	.707	.464	2.027
	가계자산(로그)	.208	.237	1.231	.464 ***	.129	1.591	.469 ***	.158	1.599
독립 변수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163	.706	1.177	.740 ***	.286	2.096	-.030	.324	.970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	-.314	.525	.730	.753 **	.316	2.123	.275	.343	1.317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19.1	14755.59	.000	-1.055	1.086	.348	-.160	.922	.852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049	.620	.952	-.005	.315	.995	-.384	.361	.681
	상속증여 제공	.694	.560	2.001	.481	.324	1.617	-.590	.398	.555
	상속증여 수혜	1.159	.535	3.187	-.120	.301	.887	.009	.339	1.009
상수	-1.906	6.024	.149	-21.355	5.725	.000	-23.569	6.369	.000	
χ^2	21.417			58.751***			65.033***			
Nagelkerke R ²				.203			.333			

*p< .1, **p< .05, ***p< .01

고 한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결과가 중간 소득계층의 자원이전 행동에서만 지지되었다.

<표 6>은 소득계층별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3개의 다중회귀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각각의 모형의 설명력은 가계소득 하위집단은 16.7%, 가계소득 중위집단은 11.7%, 가계소득 하위집단은 18.5%였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하위 집단에서는 성, 자녀수, 가계자산,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해 보면, 가계자산, 성,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자녀수의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났다. 경제자원 이전 변수들 중에는 유일하게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김영순(2013)의 연구에서 중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

〈표 6〉 소득계층별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통제·독립 변수 (준거집단)		생활만족도								
		가계소득 하 (n=220)			가계소득 중 (n=442)			가계소득 상 (n=227)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 변수	성(여성)	.231 **	.107	.165	.010	.079	.008	.098	.090	.088
	연령	-.014	.012	-.091	.007	.009	.048	.003	.011	.022
	교육2-고등학교(중학교이하)	.007	.109	.005	.143 **	.072	.105	-.024	.114	-.021
	교육3-대학이상(중학교이하)	-.012	.271	-.003	.128	.132	.052	.291 **	.138	.241
	취업(비취업)	-.038	.103	-.027	.051	.073	.037	-.111	.089	-.089
	배우자	-.003	.107	-.002	.016	.116	.007	.194	.186	.068
	자녀수	.077 *	.043	.140	.025	.037	.036	-.064	.050	-.095
	가계소득(로그)	.130	.079	.112	.195 **	.106	.087	.060	.095	.044
가계자산(로그)	.091 ***	.032	.207	.087 ***	.022	.190	.055 *	.030	.133	
독립 변수	부모에게 경제자원 제공	.262 **	.135	.131	.012	.068	.008	-.007	.072	-.006
	자녀에게 경제자원 제공	.061	.092	.044	.065	.066	.048	.097	.076	.085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354	.282	-.091	-.320 *	.175	-.085	-.396 **	.195	-.131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110	.108	.079	-.058	.069	-.044	.089	.082	.080
	상속증여 제공	.159	.108	.102	.221 ***	.076	.149	.049	.087	.038
	상속증여 수혜	-.039	.105	-.026	.009	.068	.006	-.016	.075	-.014
상수	1.188	.995		-.391	1.215		1.947	1.191		
F	2.719***			3.761***			3.190***			
R ²	.167			.117			.185			

*p< .1 **p< .05 ***p< .01

자원의 액수가 클수록 중년기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자원제공이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계소득 중위 집단의 경우는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계자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상속증여 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자산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와 상속이나 증여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만족도

가 높았다. 가계소득 상위 집단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교육수준, 가계자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지 않는 경우 수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 준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부모 중 한명 이상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는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년층 931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생활비 준비의 충분성 인식과 생활만족도는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생활만족도도 높았다. 중년층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노후생활비 준비정도와 생활만족도가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층의 전반적인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 만족에 있어서 현재의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자원이 확보되어야 노후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잘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므로 중년층 가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년층의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도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소득 상위 집단의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약 41%였고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도 보통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객관적 경제적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준비가 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경제적인 풍요가 생활만족도를 크게 높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년층이 노년이 될 때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 뿐 아니라 이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년층의 생활 만족에 자원이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자원의 제공과 수혜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이전 액수, 이전 용도, 이전 대상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중년층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자원 이전 행동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소득계층별 행동의 차이가 모든 방향의 경제자원 이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년층의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연구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가 중년층에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중년층의 소득수준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다. 즉 중년층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원이전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중년층이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중위소득집단과 상위 소득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도 제공자의 소득 이외의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셋째, 중년층의 부모, 자녀와의 경제자원 이전의 몇몇 변인들은 노후생활비 준비의 충분성 인식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중년층의 소득계층에 따라 영향 요인들이 달랐다. 노후생활비 준비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의 영향력은 가계소득 중위 집단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는 것 보다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가계소득 중위집단의 노후생활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위소득계층의 중년층은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중년층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계층 중에서도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생활비 준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노후생활비 준비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노후생활비 준비가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노후생활비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계층의 중년층이 스스로 인식한 노후생활 준비정도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비슷한 크기로 영향을 받았다. 우리사회의 노부모 부양양식이 많이 희미해졌다고는 하나 중간계층의 중년층은 여전히 노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가계소득이 하위 집단에 속하는 중년층은 절대적인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렵고, 가계소득 상위 집단에 속하는 중년층의 부모는 경제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계소득 중위 집단의 노부모들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하여 가계소득 중위 집단의 중년층이 전통적인 부모부양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부모에 대해서 자녀로서 경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중간세

대로서의 역할과중이 중간계층에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년층의 생활만족도에 가계소득 하위집단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생활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낮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노후생활비 준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가계소득은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생활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 상위소득계층과 비교했을 때 낮은 소득계층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모부양 역할 수행이 이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중위소득, 상위소득 집단에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생활만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계소득 하위 집단에 속하는 중년층은 이들의 부모도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자녀인 중년층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저소득 중년층의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을 이전소득과 이전지출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 준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소득계층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연구에서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정보를 조사하여 통제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소득계층별 분석을 위하여 가계소득을 답하지 않은 가구들이 분석에서

제외된 것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노후생활비 준비, 생활만족도의 관계가 소득계층별로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성진·전형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2)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3)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4) ____ (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5) ____ (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6) ____ (2012a).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03-121.
- 7) ____ (2012b).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8) ____ (2013).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31-144.
- 9) 국민연금연구원(2011). 국민노후보장패널 유저 가이드 Ver.3.6. 국민연금연구원.
- 10) 김미령(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32(1), 145-161.
- 11)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12)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13)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a).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b).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16) 김영순(2013). 기혼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김영순·고선강(2014).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43-162.
- 18)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 19)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20)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21)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 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22) 노현곤·김희규(2012).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3) 문숙재·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9-329.
 - 24) 박미석·김미영(2012).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 및 집단별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35-51.
 - 25) 박지수·박경란(2009). 중년후기 성인이 지각하는 여가제약 및 여가충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89-703.
 - 26)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27)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29)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30)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31)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 32) 이은희·김금운·한규석·주리에(2004).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생성감의 역할. 한국노년학, 24(3), 131-152.
 - 33)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 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34) 임소진·어성연(2011).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29-147.
 - 35) 정운영·이희숙(2010). 중고령자 가계의 주관적 노후대비충분 여부에 따른 부동산 자산구조와 영향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8(4), 1-12.
 - 36) 조경진·김순미(2012).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적자본 투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31-151.
 - 37) 조윤주(2008).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191-205.
 - 38)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39) 통계청(2012).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40)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41) 하석철(2010). 부모 자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혜자인 부모와 제공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2), 101-136.
 - 42) 한민아·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43) 홍경준(2013). 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한국사회복지학, 65(2), 179-201.
 - 44)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45) 홍성희·곽인숙(2014). 성인자녀의 지원교환이 중년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

- 족자원경영학회지, 18(1), 70-91.
- 46) 황남희 · 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2009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1-22.
- 47) Aubin, E. & McAdams, D.(1995). The relations of generative concern and generative action to personality traits, satisfaction/happiness with life,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 99-112.
- 48) Erikson, E. H.(1963). *Children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49) Lachman, E.(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 New York.

- 투 고 일 : 2014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21일